

#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에 대한 일고찰

-活字의 所藏經緯와 活用實態를 중심으로-

A Survey of Printing Types in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이재정(Lee, Jae-Jeong)\*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의<br>活用實態 |
| 2. 國立中央博物館의 活字所藏 經緯               | 5. 결론                     |
| 3. 國立中央박물관 所藏 活字의<br>製作時期 및 製作保管處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고는 國立中央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活字의 학술적이고 세부적인 분류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먼저 활자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奎章閣 ⇒ 李王職 ⇒ 朝鮮總督府取調局 ⇒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 ⇒ 朝鮮總督府博物館을 거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朝鮮王朝實錄」 등에 나와 있는 활자의 제작 보관에 관한 기록을 통해 金屬活字의 경우 대부분 규장각에서 제작 또는 보관하였던 것들임을 밝혔다. 또한 금속활자와 함께 사용된 連刻木活字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중앙박물관 소장 활자 속에는 규장각이 본격적인 출판 인쇄기구로 기능하기 이전 校書館에서 사용한 활자들, 대한제국 시대 정부의 인쇄기구에서 사용했던 활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朝鮮王朝의 족보인 「璿源續譜」를 인쇄할 때 사용한 철활자도 소장되어 있다.

요어 : 國立中央博物館, 朝鮮總督府, 奎章閣, 活字, 連刻木活字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jjlee63@museum.go.kr)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classification and survey of printing types in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o achieve this, first I inspected the history how these printing types ca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result is the following sequence: Gyujanggak -> Yiwangjik(A government office for the Yi Royal Household -> Interrogation Bureau of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 Councillor Annex of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Museum. I found out that most of metal printing types were made by or stored at the Gyujanggak, from the records on printing type remaining in Joseonwangjosilok and other documents. I also inspected wooden types of serial carving. It proves that some of the NMK's printing types have origins other than Gyujanggak: some were used at Gyoseogwan before Gyujanggak performed its function as publishing and printing organization, and some were used in the Daehanjeguk period. Besides, steel printing types used in printing "Seonwonsokbo", the genealogical table of Yi Royal Household, are also housed.

Keywords : National Museum of Korea,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Gyujanggak, Printing Type, Wooden Types of Serial Carving

K C I

## 1. 머리말

國立中央博物館에는 조선후기에 주조한 衛夫人字, 實錄字, 整理字, 韓構字 등 많은 수의 활자가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활자가 전시되었을 뿐 이들 활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본고는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학술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들 활자가 어떻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입되게 되었으며, 활자가 만들어진 시기, 박물관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료 등 문헌기록에 근거하였으며, 덧붙여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連刻木活字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國立中央博物館의 活字所藏 經緯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활자의 대부분은 朝鮮總督府博物館 시절 박물관에 수입 등록된 것들이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경복궁에서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를 개최하면서 미술관을 설치하고 고미술품과 고고품을 전시하였다. 당시 미술관 전시품 중에는 활자와 그 관련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전시품은 미술관 서쪽 진열실에 전시되었다.<sup>1)</sup>

「取調局圖書關係書類綴」에 첨부되어 있는 “大正博覽會出品說明書”에는 ‘朝鮮在來의 活版’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활자 및 그 관련품에 대한 기록이 있다.<sup>2)</sup>

1) 朝鮮總督府編,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京城: 朝鮮總督府, 1916), 제 권 4장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년 2월), 47.

조선에서는 고려 때부터 活版印刷을 행하였다는 事蹟이 있으나, 그 활자 및 활판본은 지금 전해오지 않는다. 조선 때에는 太宗 3년(511년진) 이후 여러 차례 활자를 제작하고 활판으로 인쇄한 서적 및 기록이 매우 많다. 조선총독부에 소장하고 있는 활자의 수는 60만여 개이다.

□ 衛夫人字 : 중국의 晉代 사람 李充의 어머니 衛부인의 필적을 字本으로 하였다는 전설로 인하여 이 명칭이 붙었다고 하나 그 事蹟은 없다. 조선 태종 16년(498년진) 중국 明代 翰林學士의 필적을 판본으로 한 「孝順事實」, 「爲善陰鷲」, 「論語」 등의 서적을 字本으로 주조한 銅活字의 殘遺와 英祖 48년 및 正朝 원년 주조한 同種의 활자가 혼합된 것.

□ 實錄字 : 조선 역대의 실록 인쇄에 사용되어 이 명칭이 붙음. 顯宗 9년 주조된 것이 많고 世祖 및 成宗 때에 주조된 것도 포함된다.

□ 韓構字 : 조선 肅宗 때 한구의 필적을 자본으로 한 활자로 肅宗 26년, 正祖 6년 및 哲宗 9년에 주조

□ 整理字 : 처음에 「整理儀軌」를 인쇄하기 위해 주조하여 이 명칭이 붙음. 이 활자는 정조 16년 「康熙字典」을 자본으로 하여 목활자를 만들고 다시 이를 자본으로 동활자를 주조하고 후에 추가 주조한 것으로 정조 20년 및 철종 9년에 주조한 것.

□ 「世宗莊憲大王實錄」 권119 : 이 기록은 조선역대 실록 1699권 중의 1권에 속하며 세조 때 주조한 實錄字를 이용하여 인쇄한 기록의 하나로 대략 세조말년(447~8년진)에 인쇄한 것이다.

□ 「國朝寶鑑」 : 조선 역대의 정사인 「國朝寶鑑」 중의 1책으로 衛부인자로 인쇄한 판본의 하나에 속하며 세조 2년(457년진) 인쇄한 것.

□ 「奎華名選」 : 조선 정조 때 문신들이 製述한 詩文을 편찬한 것으로 한구자로 인쇄한 판본의 하나에 속하며 조선 정조 17년(121년진)에 인쇄한 것.

□ 「大學類義」 : 조선 정조 때 「大學衍義」 및 이의 보유본을 요약 편찬한 것으로 정리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판본의 하나에 속하며 이조 純祖 3년(109년진) 인쇄한 것

□ 植字板 : 舊時 활판인쇄에 사용된 식자판에 식자는 구래의 방법으로 이 번에 만든 것.

□ 刷毛 및 箒 : 舊時 활판 인쇄에 사용한 쇄모 및 저로서 쇄모는 墨汁을 판면에 바르는 데 사용하고 저는 활자를 집는데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한 것들은 실제 공진회에 출품된 것들이다.

1915년 10월 31일 공진회가 마무리된 후 약 한 달 만인 12월 1일 미술관이었던 건물을 박물관으로 변경하여 박물관이 발족함에 따라<sup>3)</sup> 이 활자들은

2) 「取調局 圖書關係書類綴(明治 44년)」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3) 목수현, 앞의 논문, 51; 조선총독부박물관 역사에 대해서는 허영섭,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서울: 한울, 1996);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물관, 박물관」(서울: 서경문

박물관으로 인계된 것이다. 현재 國立中央博物館에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물대장과 유물카드에는 이들 활자 및 부속품들이 1916년 4월 30일 本府 參事官室에서 博物館으로 인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총독부 참서관 분실은 일제가 1912년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取調局을 폐지하고 崔造국이 진행해 오던 舊貫制度調查事業을 완료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이다.<sup>4)</sup> 崔造국은 구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조선도서의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미명 아래 李王職 도서관에서 관리하던 奎章閣 圖書와 史庫의 소장분을 접수하였다.<sup>5)</sup>

「取調局 圖書關係書類綴(明治 44년)」 1911년(明治 44) 6월 15일자 “圖書引繼報告”에 기록되어 있는 李王職 에서 崔造국으로 인계한 도서 중 원래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던 도서의 인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圖書課保管 圖書數  
 部數 約 2,771部 外散佚本 約 1,582部  
 冊數 約 85,525冊 外散佚本 約 20,940冊  
 合計  
 部數 5353部 冊數 100,187 冊  
 ○記錄課保管 記錄類  
 冊數 11,730冊  
 ○鑄字板木其他  
 鑄字 653,921字, 71盒  
 板木 9,507板  
 附屬品 12種  
 御製 및 御筆刻板 471板  
 手帖木刻板 53板  
 額 24板

여기에 鑄字, 즉 活字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崔造국에서는 도서

화사, 2001); 정준모, “한국 근현대 미술관 연구,” 『현대미술관연구』 제 14집 참조.

4) 김태웅,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崔造국 참서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 『규장각』 16, 107.

5) 백린, 『한국도서관사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129.

6) 白麟, “조선후기활자본의 형태서지학적 연구(하),” 『한국사연구』 4, 153에는 「朝鮮總督

대장을 작성하여 도서 정리에 착수하였으나 板木, 鑄字, 雜品 등은 종래의 서고 내에 그대로 두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sup>7)</sup>

취조국의 뒤를 이은 참서관분실에서는 취조국에서 행하던 사업을 이어 도서정리사업과 함께 활자정리사업도 시행하였다.

「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1)」, 「事務關係書類」의 大正 2년(1913) 10월 1일~12월 25일 「圖書整理事務經過概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sup>8)</sup>

參事官分室 보관 중인 朝鮮活字는 大正 2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물을 조사하여 이를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용기에 넣어 제 7庫에 격납함. 그리고 별도로 주조연대를 조사하기 위하여 鑄字事實帳, 實錄 등을 재료로 관련기사를 채록하고, 또 현존활자와 활판본을 대조하여 대략 연대를 밝힐 수 있었다.

- 衛夫人字 약 16만개
- 實錄字 약 14만개
- 韓構字 약 15만개
- 整理字 약 20만개
- 植字盤 30개
- 刷毛 3개
- 箒 12개
- 墨入 2개
- 墨鍊台 8개

(작성일시: 大正 4년 5월 1일)

「朝鮮舊貫制度調査事業概要」에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大正 2년 參事官室에는 奎章閣 所藏 각종 活字가 한국정부로부터 인계되어 모두 방치되어 있었고, 또 여러 종류가 섞여 있고 먼지에 쌓여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이를 분류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그 연대, 용도 및 실물을 조사하여 이를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재래의 방식에 따라 용기에 넣고 庫中에 배열하였다.(중략) 그 방법은 먼저 활자를 세척하여 이를 대소별로 구분하고, 다시 문자를 扁, 旁, 查, 冠, 別字別 등으로 정리하고 康熙字典 외 순서에

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1)」, 「事務關係書類」를 인용하여 取調局에서 활자 925,631개를 인수하였다고 하고 그 내역을 수록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이 서류철을 살펴본 결과 서류철에는 이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7) 「取調局圖書關係書類綴」(이승일,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 분류 활동,” 『기록학연구』 4집(2001), 102에서 재인용)
- 8) 「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에 대한 일고찰

따라 용기에 배열하였다. 활자용기 21 櫃도 여러 해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외부 및 내부의 서랍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거의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를 일일이 수선하고 정리가 끝난 활자를 배열하여 大正 3년 말 일부의 정리를 완료하였다. 다시 나머지 및 목활자, 철활자 등의 정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착수하여 大正 5년 초에 모두 완료하였다. 字藪 10책을 편성하였다. 정리한 사람은 渡邊業志이며 활자는 현재 本府 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다.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sup>9)</sup>

金屬製			木製		陶活字 및 附屬品	
명칭	크기	수량	명칭	수량	명칭	수량
衛夫人字	大字	102,894	新活字 腰高大字	9,797	陶活字大字	96
衛夫人字	小字	75,181	新活字 腰高小字	9,035	陶活字小字	129
實錄字	大字	55,749	新活字 普通大字	10,934	活字櫃	21
實錄字	小字	13,996	新活字 普通小字	11,221	硯石	7
韓構字		46,451	합계	40,987	植字板	32
整理字	大字	116,766	舊活字 極大字	533	眞鍮製野	95
整理字	小字	108,100	舊活字 大字	186,587	鐵製箸	1조
鐵活字	大字	9,149	舊活字 小字	58,196	竹製箸	3조
鐵活字	小字	7,107	舊活字 極小字	51,790	墨汁入土器	6
諺文字	大字	262	諺文字 大字	6,631	箱 (活字用古箱)	165
諺文字	小字	575	諺文字 小字	2,488	馬鬣	2
字名未定字		1,017	합계	306,085	刷毛	2
금속활자합계		537,247	목활자합계	347,172	刷毛 (水注用)	2

위 표에 나와 있는 활자의 명칭과 내용은 참사관분실에서 총독부박물관에 인계할 때의 내용과 동일하다.<sup>10)</sup> 금속활자의 경우는 활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혀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목활자, 철활자, 도활자 등은 구체적인 성격을 밝히기 못한 채 재질과 크기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분류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사관분실에서는 활자정리 후 이를 바탕으로 字譜를 만들고 見本帖을 찍

9) 中樞院編,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京城: 中樞院, 1938), 49-52.

10) 이 중 일부 부속품은 6.25 동란 시 활자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가 폭격을 맞아 망실되었다.

어내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활자 字藪 중에 「實錄字目錄(大字, 小字)」이 있는데, 이 책은 참사관 분실이 활자의 정리를 마치고 편성했다는 자수 10책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庄司淺水 著 「印刷文化史」에 조선총독부에서 소장한 [鐵字] [整理字] [韓構字] [實錄字] [衛夫人字] [諺文字] 등의 활자를 표본으로 만들어 관계방면에 분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sup>12)</sup>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가운데 이 때 인쇄한 것으로 보이는 책이 있다.

표제는 「朝鮮活字見本帖」이며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4張, 四周單邊, 半郭, 24.7x17.0cm, 10行 18字, 上黑魚尾; 35.0x22.4cm

이 중 版心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판심제는 각각 [衛夫人字], [實錄字], [韓構字] [整理字] [鐵字] [諺文字]이며 한구자를 제외하고는 大字와 小字가 각각 한 장씩이다. 소자는 雙行으로 되어 있다. 제목 그대로 각 활자의 견본을 1장씩 인쇄한 것으로 1행이 모두 동일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나 1행에 동일한 글자가 연달아 인쇄되어 있다. 판심의 아래쪽에는 朝鮮總督府라고 발행처가 명기되어 있다. 동일한 책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현재 이 중 정리자 소자와 위부인자 소자의 원판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1915년(大正 4년) 시정 5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진회를 개최하면서 정리된 활자를 바탕으로 衛夫人字를 이용하여 「靑丘詩鈔」를 인쇄, 반포하였다. 이것이 구식활자로 찍은 마지막 인쇄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국립중

11) 김영선, “활자자보고,” 「문헌정보학논집」 8(2002), 370-371 자보에 대해서는 윤병태, 「규장각소장 활자 자보고」, 「규장각」 11(1988)와 “규장자수고,” 「규장각」 12(1989) 참조.

12) 庄司淺水 著 「印刷文化史」(東京: 印刷學會出版部, 1957), 67-68.

13) 한국도서관학연구회편저, 「한국고인쇄자료전시도록」(서울: 선문출판사, 1976), 19 참조. 이 책에서는 이 활자를 정유자라고 하였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유자는 철종 연간 鑄字所 화제로 대부분 소실되었으므로 이 활자는 임진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五鑄甲寅字(壬辰字)와 六鑄甲寅字(丁酉字)는 형태가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양자 중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衛夫人字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양도서관에는 그 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책머리에는 大正 4년 9월 참서관 秋山雄之介의 서문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활자는 李王職 ⇒ 朝鮮總督府 取調局 ⇒ 朝鮮總督府 參事官 分室 ⇒ 朝鮮總督府博物館의 단계를 거쳤다.

李王職은 일제 강점기 이왕가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로 대한제국시대 황실 업무를 담당하던 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되었다. 조선총독부 崔祖國이 이왕직으로부터 접수한 도서는 구한말 궁내부 소속 규장각에서 관리하던 것들이었다.<sup>14)</sup>

정조시대에 설립된 규장각은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쳤는데, 1908년 대한제국 궁내부는 규장각의 기구를 신식으로 개정하여 典謀課, 圖書課, 記錄課, 文事課를 두었다. 이 시기에 규장각이 관리하는 장서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京畿史庫의 藏書와 經板閣의 板本 및 鑄字, 네 史庫의 장서가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다고 한다.<sup>15)</sup>

결국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활자는 규장각에서 관리하던 활자가 이왕직, 조선총독부 崔祖國, 참서관실을 거쳐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활자가 여러 차례 제작되었고, 규장각 자체가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던 만큼 실제 중앙박물관 소장 활자가 언제부터 규장각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였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여러 종류의 목활자나 도활자, 철활자 등은 崔祖國의 인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후술하는 「鑄字所應行節目」 등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서관분실

14) 신용하,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 제5집(1981), 73. 참조

15) 규장각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신용하, 앞의 논문 참조. 규장각 기구의 개편에 대해서는 宮內府大臣官房調査課編, 『宮內府規例』(京城, 1910), 48-50의 “奎章閣分課規程” 및 서울대 규장각 홈페이지의 규장각연혁 참조. 經板閣은 정조 6년(1782) 규장각의 외각인 교서관 안에 새로 지은 것으로 새로 제작한 목판과 그 이전부터 교서관에서 보관해오던 鑄字 등을 10여년에 걸쳐 이곳에 옮겨 점진적으로 보관했다고 한다. 經板閣에 있던 목판 등은 1907년 다시 규장각의 내각으로 옮겨졌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經板閣항 참조)

에 인계되기 이전 이들 활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서 보관하였는지는 더 상세히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헌자료와 기존연구를 통해 이들 활자가 언제 제작되고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 3.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의 製作時期 및 製作保管處

「取調局圖書關係書類綴」이나 「朝鮮舊貫調查事業概要」 등에 중앙박물관 소장 활자가 규장각에서 인수된 것이라고 기록하였으므로 먼저 규장각에서 언제 어떠한 활자를 제작하고 이를 어디에 보관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sup>16)</sup>

正祖는 세자로 있을 때인 英祖 48년(1772) 世宗 때 만들어진 甲寅字를 字本으로 壬辰字 15만개를 새로 주조하여 校書館에 보관하게 하였다. 즉위 원년인 1776년에는 다시 평안감사인 徐命膺에게 명하여 갑인자를 자본으로 丁酉字 15만개를 더 주조하게 하였다. 정조 6년(1782)에는 숙종초 민간에서 金錫胄가 한구의 글씨를 자본으로 만든 韓構字를 다시 주조하게 하였는데 이를 壬寅字 즉 改鑄韓構字라고 한다. 정조 16년(1792)에는 청나라의 四庫全書聚珍板式을 본떠 康熙字典字를 字本으로 生生字를 만들었고 1795년에는 생생자를 자본으로 整理字 大小字 30만자를 새로 주조하도록 명하였다. 정조 18년(1794)에는 창경궁의 옛 홍문관 자리에 鑄字所를 다시 설치하고 앞서 주조한 정유자, 임인자(재주한구자), 생생자 등을 주자소로 옮겨 보관하였다. 철종 9년(1895) 간행한 「國語」의 卷末에 당시 활자 주조 및 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正宗朝丁酉，命平安道觀察使徐命膺，以甲寅字爲本，鑄十五萬字，儲之內閣。又於壬寅，命平安道觀察使徐浩修，以本朝人韓構書爲字本，鑄八萬餘字，亦儲之內閣。壬子命倣中國四庫全書聚珍板式 取字典字本，木刻大小三十二萬餘字，名之

16) 본고에서는 金屬活字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木活字, 陶活字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활자와 印本을 직접 비교해야 하므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금속활자의 활용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목활자 등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曰生生字. 甲寅命內閣, 銅字移藏于昌慶宮之舊弘文館, 稱以鑄字所. 丙辰整理儀軌將印行, 命奎章閣直提學李晚秀, 奎章閣原任直閣尹行恁監董, 以生生字爲字本, 鑄大字十六萬小字十四萬餘, 名之曰整理字, 分儲七櫥, 藏于鑄字所

純祖 년간에 편찬된 「鑄字所應行節目」 “活字條”에서는 당시鑄字所에 보관하고 있던 활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새로 수량을 헤아리고 대조를 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다음과 같이 활자의 보관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御筆序文大字	435
孟子眞書字	5,594
諺書字	45,065
衛夫人銅字大字	105,638
小字	44,532(丁酉箕營鑄成)
韓構銅字	83,660
燕賀木字大字	11,500 庚戌賀來
燕賀木字小字	11,450
燕賀木字大字	9,600 辛亥賀來
燕賀木字小字	9,900
生生字大字	157,200 甲寅造成
生生字小字	164,200
整理銅字大字	160,000 丙辰鑄成
整理銅字小字	140,000
五倫行實諺書字	4,400 乙卯造成
春秋綱字	5,260 丁巳造成

앞서 인용한 「國語」에서는銅字만 주자소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鑄字所應行節目」의 기록에 생생자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생생자도 주자소로 옮겨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청나라에서 목활자를 수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철종 8년(1857) 창경궁내에 있었던 純元王后 殯殿都監의 假屋에 불이나 인접한 주자소에 불이 옮겨 붙음으로써 주자소 대청과 거기에 수장하였던 行閣藏板庫의 活字板刻 및 기타 인쇄도구 등이 대부분 불타버렸다. 鄭元容의 「裕香編」에서는 당시 소실된 활자 총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sup>17)</sup>

元宗御筆孟子	5,594
諺字	4,605
大字	430
衛夫人字	105,638
小字	44,531
韓構字	83,300
生生字大字	157,200
生生字小字	144,300
整理字大字	160,000
整理銅字小字	160,000
燕賀唐字 大字	9,600
小字	9,900

두 기록상의 명칭과 활자 수량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자소에 당시 보관되어 있던 활자가 대부분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활자가 소실된 다음해인 철종 9년(1858)에 철종은 규장각 檢校提學 金炳冀 등에게 명하여 정리자 대자 89,203자, 소자 39,416자, 한구자 31,829자를 제작하게 하고, 타고 남은 완자 175,698자를 합하여 주자소에 보관하게 하였다.<sup>18)</sup> 그 다음 해인 1859년부터 서적 인쇄에 착수하여 고종 말까지 수많은 서적들이 계속 印出되었다. 이 때 만들어진 정리자를 재주정리자, 한구자를 삼주한구자라고 한다.

철종 9년(1859) 새로 주조한 활자로 시험 삼아 간행한 「國語」의 권말에 당시 활자 주조 및 「國語」 편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sup>19)</sup>

後六十二年，當寧丁巳鑄字所失火。戊午命奎章閣檢校提學金炳冀，奎章閣提學尹定鉉，奎章閣提學金炳國主管，鑄整理大字八萬九千二百三字，小字三萬九千四百十六字，韓構字三萬一千八百二十九字，與燼餘完字十七萬五千六百九十八字，藏于鑄字所，已未命以整理字印國語，蓋鑄字成試印書例也。

鄭元容의 「袖香編」 鑄字新鑄에도 수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17)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4), 354에서 재인용.  
 18) 하지만 鄭元容의 기록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구자와 정리자의 경우 「鑄字所應行節目」의 기록과 대조하면 주자소에 보관하고 있던 활자가 거의 다 불타버린 것이 되지만, 타다 남은 완자가 175,000여 자에 이르고 있다.  
 19) 김원중, 앞의 책 352-357.

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을 볼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整理字와 韓構字는 철종 8년 주자소 화재 후에 남은 것과 철종 9년 새로 주조한 것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부인자의 경우에는 「取調局圖書關係書類綴」에 태종 16년 주조한 동활자 즉 갑인자의 잔유분과 임진자, 정유자가 혼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초주갑인자는 존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顯宗 9년(1663) 주조하여 교서관에 보관한 戊申字는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sup>20)</sup> 정유자는 철종 8년 주자소 화재 때 거의 불타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앙박물관 소장 위부인자의 대부분은 임진자로 보아야 한다.<sup>21)</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조는 동궁 시절 만든 임진자를 교서관에 보관하게 하였으며, 등극 후에는 교서관을 규장각에 예속시켜 外閣이라 하였다. 이후 서적의 인출과 반포는 규장각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졌다.<sup>22)</sup>

교서관에 보관하고 있던 임진자는 주자소 설립 이후에도 계속 교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자소 화재로 활자가 불탄 후 다시 주조할 때 정유자가 주조되지 않은 것은 교서관에 임진자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sup>23)</sup> 또 주자소 설립 이후에도 교서관에서 계속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

20) 무신자에 대해서는 천혜봉, 「한국서지학」(서울: 민음사, 2002), 291. 참조.

21) 남권희, “한국 고활자 특별전의 전시자료에 대한 개관,” 「한국고활자특별전」 도록(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128-141. 참조.

22) 백린, “조선 후기 활자본의 형태서지학적 연구(하),” 137. 및 「한국도서관사연구」 117.

23) 백린, 앞의 논문 하, 138; 천혜봉 앞의 책, 291-297; 강순애, “규장각의 도서관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합집호(1990), 243-250 참조. 정조 21년(1797) 인출한 「春秋左氏傳」의 권말 鑄字事實에는 정조 18년 내외각의 銅字를 주자소로 옮겨왔다고 기록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春秋左氏傳」: 고조 07-19) 따라서 김두중, 앞의 책, 353에서는 주자소 설립 후 주자소에 수장되었던 활자 속에 임진자를 포함시켰으며, 방효순, “「운각책도록」을 통해서 본 교서관 장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8집(1992) 14에서도 주자소가 교서관에서 분리, 주자소는 본각과 교서관이 소장했던 활자를 인계받았고 주자사업도 주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인용한 「國語」에는 운각 즉 교서관 소장 동활자가 주자소로 옮겨졌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朝鮮王朝實錄」 정조 20년 12월 15일 丙辰條 역시 마찬가지이다 「日省錄」 순조 년간의 교서관과 관련된 여러 기록에서도 당시 교서관에 임진자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후술

으며, 특히 주자소 화제 얼마 후인 철종 10년(1859) 「崇禎紀元後四戊午式年司馬榜目」 등 일련의 사마방목이 위부인자로 간인되었다. 이는 당시 교서관에서 위부인자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정유자가 주자소 화제로 불탄 다음이므로 이 때의 위부인자는 임진자로 봄이 옳다 하겠다.<sup>24)</sup>

1908년 大韓帝國 宮內府는 규장각의 기구를 신식으로 개정하여 典謀課, 圖書課, 記錄課, 文事課를 설치하였다. 이 중 기록과에서 史庫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史庫를 관리하게 됨에 따라 京畿史庫의 藏書와 經板閣의 板本과 鑄字가 규장각에 이관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 교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활자 및 경판 등이 모두 내각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sup>25)</sup>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隆熙 3년(1909) 鑄字所에서 편찬한 字譜인 「鑄字目錄」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은 교서관 7齋에서 소장하고 있던 위부인자의 자보로 대자 112,430자, 소자 91,491자를 부수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sup>26)</sup> 교서관에 보관하고 있던 임진자를 규장각으로 이관하면서 활자의 수량을 파악하여 자보를 만든 것일 것이다.

중앙박물관에 實錄字라는 명칭으로 보관되어 있는 활자는 顯宗實錄字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활자는 숙종 3년(1677) 「顯宗實錄」을 인출하기 위하여 민간의 洛東契에서 만들어 사용하여 오던 낙동계자 35,830자를 구입하고, 여기에 40,825자를 더하여 이름 붙인 것으로 실록 편찬이 완료된 후 교서관에 이관하였다.<sup>27)</sup> 정조 원년(1777) 무렵 편찬한 자보인 「實錄字藪」는

하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도 임진자는 교서관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4) 강순애, 앞의 논문, 248-249에서는 활자를 보관한 곳에서 곧바로 서적을 인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책자에 芸閣 혹은 外閣活印이라고 표시한 것은 壬辰字로, 內閣活印이라고 표시한 것은 丁酉字로 찍은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정유자가 소실된 후이므로 주자소에 보관되었던 활자를 교서관에 가져가서 인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5) 백린, 앞의 논문 상, 151에서는 정리자와 한구자는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남아 전자는 주로 교과서, 판보, 범령 및 조약문 등의 인쇄에 사용되었고 후자는 詩文의 인쇄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래로 奎章閣 外閣의 하나로서 교서관에 수장되어 오던 활자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 經書와 文集, 榜目 등의 인쇄에 사용되어 隆熙 2년(1908)에 이르러 궁내부 규장각에 그 설비 일체가 넘겨졌다고 한다.
- 26) 규장각 홈페이지의 「鑄字目錄」해제 및 「한국고활자특별전」 도록 참조.

바로 교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실록자의 보관사항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sup>28)</sup>

금속제 활자 중 諺文字 大字와 小字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종전에 丁酉字併用 한글자로 보기도 하였다.<sup>29)</sup> 하지만 현재 정유자는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글자의 형태로 보아도 丁酉字併用 한글활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후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鐵活字의 경우에는 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주로 민간의 文集, 族譜, 實記, 榜目 및 日用諸書 를 찍는 데 이용되었다. 이 활자는 이후 조선왕실의 족보인 「璿源續譜」를 편찬할 때 사용되었는데, 이 책은 宗親府의 후신인 宗正院에서 출간한 것으로, 중정원에서 이 활자를 사들였거나 세를 내어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30)</sup>

지금까지 규장각, 활자 등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의 제작년대 및 보관처 등을 알아보았다. 위부인자, 정리자, 한구자 외에는 규장각에서 제작한 기록이 없으며 실록자의 경우에는 규장각에서 보관은 하였지만 규장각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었으며 철활자 역시 민간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활자들도 교서관과 같이 규장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작, 보관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정조 시대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4.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의 活用實態

이 장에서는 중앙박물관으로 활자가 입수되기 전 이들 활자가 어디에서 어

27) 백린, 앞의 논문 상 138-139, 「顯宗實錄纂修廳儀軌」에서 인용. 김영선, 앞의 논문 370에서 현종실록을 찬수할 때 대규모 補字가 쓰였다고 한다. 이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8) 김영선, 앞의 논문 369-370.

29) 한국도서관학회편저, 「한국고인쇄자료전시도록」, 39, 도판 5 참조.

30) 한국도서관학회, 「한국고인쇄사」(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76), 294, “필서체 철활자” 항; 친혜봉, 앞의 책, 376-379.

편 서적을 인쇄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위부인자(임진자, 정유자), 한구자 정리자로 간행한 서적을 많이 밝혀 놓았지만<sup>31)</sup>, 조선시대 간행된 서적의 대부분이 정확한 발행연대나 발행기관 또는 인쇄기관이 명기되지 않아 중앙박물관 소장 활자가 언제 어떤 서적을 인쇄할 때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들 활자의 활용실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소장 활자 중 連刻木活字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連刻木活字란 글자 그대로 재질은 나무이며, 단어나 상용구 등을 하나로 연결하여 새긴 것을 말하는데,<sup>32)</sup> 중앙박물관 소장 목활자 가운데는 서적의 版心題나 소제목 등을 연각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연각 목활자들은 낱활자와 달리 특정한 서적 또는 인쇄물을 찍을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서적 또는 인쇄물을 인쇄할 때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각활자들의 쓰임새를 추적함으로써 중앙박물관 소장 활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sup>33)</sup>

먼저 조사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34)</sup>

「春秋經傳集解」



<그림 1> <그림 2>

「春秋左氏傳」에 대한 諸家の 설을 정리한 책이다. 세종 22년(1440) 집현전에서 왕명으로 편찬한 후 조선시대 여러 차례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春秋經傳集解」 권 1의 마지막에는 杜預의 집해본을 위주로 하면서도 「附註」라는 항목을 설정해 宋나라 林堯叟와 朱申의 학

31) 김두중, 앞의 책, 제 8장 참조.  
32) 朴齊家, 「北學議」 內篇, “塘報”에 “邸報中恒用句語, …或三字四字五六字相連而刻之. …姜豹菴曰, 觀象監刊曆鑄字以此法行之”라 하였다.(김상호, “관상감활자고,” 『도서관학』 14-1(1987)에서 재인용). 항상 쓰는 용어를 서너자씩 연결해 주조한 예를 설명한 것인데 목활자의 경우는 이런 예가 많았던 것 같다.  
33) 중앙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전반에 대해서는 이재정,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 調査-連刻木活字를 중심으로”(『제7회 동원학술대회발표요지』, 2004년 11월 20일) 참조.  
34) 본고에서는 연각목활자 인본의 확인을 위해 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이용하였다.

설을 채록하고, 唐나라 陸德明의 『經傳釋文』을 비롯한 音義를 ‘音訓’이라는 항목에 채록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아울러 이 글자들에는 陰字를 사용했다고 기록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音訓’ ‘附註’라고 음각한 연각목활자가 여러 개 남아 있다.(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春秋經傳集解』 중 금속활자본으로 세종년간 편찬한 甲寅字本과 편찬년대 미상인 戊申字本이 있다, 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音訓’과 ‘附註’는 戊申字本 (한고조 07-1)과 일치한다.(그림 2)

「明紀編年」



<그림 3> <그림 4>

王汝南과 鐘惺이 짓고 王汝南이 補定한 明 一代의 編年體 歷史書로 조선에서 여러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戊申字本 「明紀編年」이 2질 소장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판본이다. 이 중 [일산 고 2255-13]에는 康熙 39년(숙종 26년:1700) 吏曹參議 權尙夏에게 內賜한다는 기록이 있다. 편년체로 된 이 책에는

광곽 외부에 ‘高皇帝’ ‘建文帝’ 등 명나라 황제들의 명칭이 해당 기사가 있는 곳에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중앙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중에 ‘建文帝’가 있는데, 그 형태가 한고조 50-11 「明紀編年」권 2 39장의 광곽 외에 찍혀 있는 것과 동일하다.<sup>35)</sup>(그림 3, 4)

「朱書百選」

正祖가 朱熹의 저서 중 71편을 친히 뽑아 정조 18년(1794) 丁酉字를 이용하여 鑄字所에서 편찬 인쇄한 책이다.<sup>36)</sup>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5) 조선시대 출판된 서적은 대부분 발행기관이나 발행년대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서적의 정확한 발행년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春秋經傳集解』, 『明紀編年』의 경우 戊申字本인지 여부에 대해 추후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사항을 따랐다.  
36) 『朝鮮王朝實錄』 正祖 18년 12월 25일 戊寅 「日省錄」 正祖 21년 4월 4일 甲戌 「內閣日曆」 正祖 24년 4월 13일 乙未.



<그림 5>

「朱書百選」 중 정유자로 찍은 판본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6권 2책, 다른 하나는 6권 3책이다. 양자는 책의 판형에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전자의 판심제는 字間이 붙어 있어 連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5) 후자의 경우는 본문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활자를 사용하였다. 또 전자는 판심제 아래 魚尾가 하나만 있고 후자는 상하 어미 사이에 판심제가 있다. 전자의 경우 표지



<그림 6>

다음에 ‘御定朱書百選’과 ‘內閣活印’이라고 찍혀 있는 표제지가 있는 반면 후자에는 없다는 점도 다르다. 중앙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중 전자의 판심제와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그림 6) 따라서 이 연각목활자는 6권 3책본 「朱書百選」의 판심제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史記英選」



<그림 7>



<그림 8>

정조가 司馬遷의 「史記」와 班固의 「漢書」에서 중요부분을 뽑아 엮은 책이다. 정조 20년(1796) 주자소를 복설하여 정유자로 간행하였다.<sup>37)</sup>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史記英選」에는 6권 3책으로 된 것과 8권 5책으로 된 활자본 또는 목판본이 있다.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 권 181 “群書標記”에 본서가 6

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日省錄」 정조 20년 12월 25일에는 8권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였다.<sup>38)</sup> 두 책은 편집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인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39)</sup>

37) 「朝鮮王朝實錄」 正祖 20년 12월 15일 丙戌; 「日省錄」 정조 20년 12월 25일 丙申.  
 38) 「弘齋全書」 “群書標記”에서는 「史記」에서만 뽑은 것으로 되어 있고 열전도 22열전을 수록했다 하였으나, 「日省錄」 正祖 20년 12월 25일자에는 「史記」에서 30열전을 뽑고 「漢書」에서 8열전을 뽑아 덧붙였다고 기록하였다.(그러나 실제 8권 5책본 「史記英選」의 열전 수는 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39) 일반적으로 「朱書百選」은 정조 18년 갑인년에, 「史記英選」은 정조 20년 병진년에 인쇄

이 두 종류의 「史記英選」은 내용면에서는 같으나 권수가 다르며 6권 3책본의 경우 표지 다음에 ‘御定史記英選’ ‘丙辰內閣活印’이라는 내용의 표제지가 있으나 8권 5책본은 바로 목차가 시작된다. 판심제의 형태도 다르다. 첫 번째 것은 판심제가 위의 「朱書百選」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활자와는 달리 자간이 매우 조밀하여 연각목활자로 찍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그림 7), 후자의 경우는 본문과 같은 활자를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미의 형태도 첫 번째의 것은 판심제 위에 하나만 있는데 비해 후자는 판심제를 가운데 두고 어미가 아래위로 새겨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중에는 ‘史記英選’이라고 새긴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과 그 새긴 형태가 같아 이 당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8)

### 「奎章閣志」



<그림 9>

규장각의 제도와 의식을 기록한 官署志로 정조의 명을 받아 徐命膺, 蔡濟恭, 黃景源, 李福源 등이 初草本과 再草本을 만들어 정조 8년(1784) 정유자로 교서관에서 간행하였다.<sup>40)</sup> 책머리에 御製序文이 있고 책끝에 제작자 5명의 跋文을 실었으며, 규장각의 의의·조직·기능·의식 및 閣臣의 지위와 권리·의무 등이 수록되어 정조 당시의 제도 및 의식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奎章閣志」는 모두 5권이며 서지사항에는 정유자본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중 3권에는 內賜記가 있는데 각각 乾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內閣日曆」의 정조 23년(1799)을미년 12월 8일의 기록에는 乙卯新印朱書百選, 丁巳新印史記英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朱書百選」과 「史記英選」을 간행한 다음 해에 새로 「朱書百選」과 「史記英選」을 간행한 것이 된다. 같은 기사에는 戊午新印八字百選이라는 기록도 보이는데 「八字百選」은 여러 곳에서 辛丑年(정조 5:1781)에 이미 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서적은 정조 시기에 두 번에 걸쳐 인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때 판형을 바꾸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40) 「朝鮮王朝實錄」 正祖 8년 6월 1일 甲申; 「日省錄」 正祖 8년 5월 4일 戊午. 이 기사에 의하면 이 때 「奎章閣志」의 인출 수량은 1천건이다.



<그림 10> <그림 11>

隆 49년(정조 8년(1784):고 2107-54), 光緒 11년(고종 22년(1885):고 2107-68) 光緒 16년(고종 27년(1890):승계고 2107-92) 이다. 이 5질은 책의 크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내용이나 형태가 거의 같아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판심의 모양이나 음각한

소제목에 약간 차이가 있어 두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중앙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가운데 '奎章閣志' '曬書儀' 등이 있는데 (그림 9) 그 모양이 광서 11년과 광서 16년 내사기가 있는 「奎章閣志」의 판심제 및 '曬書儀' 등 소제목과 크기, 형태가 같다.(그림 10, 11) 「日省錄」에는 정조 8년 인출한 「奎章閣志」가 남아 있지 않아 고종 11년 새로 인출한다는 기사가 있다.<sup>41)</sup> 따라서 이들 목활자는 고종 11년(1874) 「奎章閣志」를 重印할 때 만들어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實錄廳題名記」



<그림 12> <그림 13>

「實錄廳題名記」는 실록을 편찬한 후 그 작업일정과 작업에 참여한 摠裁官·堂上·郎廳을 정리하여 活印한 것이다. 實錄의 편찬일정 및 참여인원을 일람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實錄廳題名記」는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실록의 실록청제명기이다.

이들의 판형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정유자를 사용하여 인출하였다. 다만 철종실록의 「實錄廳題名記」는 실록자를 이용하였다. 판심제는 모두 연각목활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각 그 형태가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 연각목활자 중에 '實錄廳題名記'가 있는데 그 형태가 철종 3년(1852)에 찍은 헌종실록의 「實錄廳題名記」와 동일하다.(그림 12, 13)

41) 「日省錄」高宗 11년 7월 15일 乙卯; 「內閣日曆」高宗 11년 10월 2일 辛未.

「列聖御製」



<그림 14>



<그림 15>

조선시대 역대 왕들이 지은 시문을 모은 책이다. 인조 9년(1631) 義昌君 李玼이 태조부터 선조까지(단종과 연산군 제외) 12대 왕들의 글을 편집해 1책의 목판본을 간행한 것이 최초이다. 숙종 이후로는 왕이 바뀔 때마다 선왕의 御製를 편집해 앞 시기의 어체에 덧붙였으며, 영조의 어제부터는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활자는 실록자를 사용하였으며 판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철종의 어제는 정리자를 사용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각왕들의 「列聖御製」가 소장되어 있는데, 판심제는 모두 연각목활자로 보이나 그 형태나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그림 14) 국립중앙박물관 연각목활자 중에는 「列聖御製」라고 새긴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이는 고종 원년(1864) 간행된 철종의 「列聖御製」 판심제로 쓰인 것과 동일한 것들이다.(그림 15)

「國朝寶鑑」



<그림 16>

조선시대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만을 모아 편찬한 편년체 사서로 새로 편찬된 보감은 이전에 완성된 것에 첨가하였다. 융희 2년(1908) 현종, 철종 2조의 보감을 찬수하게 하여 「國朝寶鑑」 90권 28책

이 완성되었다. 정조 이후 편찬된 것은 위부인자를 사용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중에는 「國朝」「寶鑑」「國朝寶鑑」 등 「國朝寶鑑」의 판심제가 있다.(그림 16)

「离院條例」

고종의 명에 의해 世子侍講院의 故事와 規程·儀禮 등을 모아 편찬한 책으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로 고종 25년(1888)과 고종 28년(1891) 두 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다. 離院은 世子侍講院의 別稱이다. 이 책은 순종이 1875년 세자로 책봉된 뒤 성장하면서 冠禮·入學 嘉禮 등의 儀式을 거치고 또 세자로서 정사에 간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활자 가운데는 「離院條例」 내 소 제목으로 사용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그림 17-1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問安 嘉禮 禮聘 提稟 이稟 動輿隨駕附 庭請 傳教 殿最 齋戒 視事 國恤 宣醮 奉審 狀達 睿疏 官職 進宴 口義 講儀 上疏式 教旨式 致詞式 教命式 入學 節日帖 日月食 冊禮 定命附, 判付規式(일부) 朝參 常參

「官報」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官報’라는 명칭을 사용한 신문은 1894년 6월 21일 발행된 것이다. 이후 관보는 판형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1910년까지 발행되었다. 한일합방 후에도 조선총독부에서 계속 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초발행에서부터 1895년 3월 30일까지는 호수 없이 부정기로 간행되었고, 1895년 4월 1일부터 호수를 붙였다. 발행기관은 1895년 3월 30일까지는 의정부 관보국, 1895년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내각기록국 관보과였다. 이후로도 발행기관은 몇 차례 변경되었다.<sup>42)</sup>

형태를 보면 1895년 3월 30일까지는 官報라는 제호 아래 발행 일자만 명기하였고, 제호 활자는 본문과 같은 整理字이다. 1895년 4월 1일부터는 ‘官報’라는 제호 아래 호수가 붙을 뿐 아니라 제호의 글자체와 글자 크기, 제판 방식도 달라진다. 제호부분은 세 칸으로 구분하여 윗칸에는 제호와 호수를 기록하고 가운데는 발행년월일과 요일, 마지막 칸에는 발행처인 ‘內閣記錄局官

42) 최정대, 「한국의 관보」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1994]), 44-57 참조

報課'라고 기록하였다.

建陽 元年(1896) 3월 2일 제 262호부터 체제가 또다시 달라진다. 즉 이 때 부터 近代式 鉛活字를 사용하여 본문의 글씨도 작아지고, 판형 또한 달라졌다.

연활자를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된 판형에서도 체호부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1호에서 3호까지는 같은 형태이지만, 4호에 와서는 요일을 나타내는 '曜'자의 모양이 달라지며 5호부터는 발행호수를 나타내는 '號'자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들 글자는 본문과 같은 정리자체이다. 체호인 '官報'도 호수에 따라 그 모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右照保護清商規則准允業

국립중앙박물관 연각목활자 중에는 다음과 같이 「官報」에 사용한 연각목활자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1895년(開國 504년) 1월 9일자 관보의 본문에 사용된 것이다. 이 날 관보에 실린 衙門令 제 1호에는 전년에 반포된 保護清商規則의 시행세칙, 이 시행세칙과 관련되어 청국상인의 상업행위 허가를 위한 양식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 중 양식 제 2호 准可證은 위 규칙에 따라 조선에 거주하려는 청국인들이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양식이다. 이 가운데 '右照保護清商規則准允業' '右照保護清商規則准允轉居' 등이 있는데 이 구절들은 다른 글자들과 달리 다소 조악하며 아래위 자간이 매우 밀착되어 있고, '保'자와 '業'자도 본문의 정리자와

<그림 20>

글자 모양이 다르다.(그림 20)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활자 중 '右照保護', '清商規', '清商', '規則准', '業' 등은 형태로 보아 여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21) 원래는 '右照保護' '清商規則准'이 각각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후 분리되었고, '轉居'와 '業'은 따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이에 있는 '允'자가 크기도 다른 것에 비해 작고 아래위로 약간의 간격이 있어 두 글자 군 사이에 끼어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21>

또 체호 '官報'와 같은 글씨체의 연각목활자가 있으며 (그림 22) 43), '錄局官報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課'라고 새긴 것이 있는데 '內閣記錄局官報課'의 일부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曜/內'라고 새긴 것이 있는데 그 형태가 1-3호까지 관보의 제호부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원래는 曜 內閣記錄局官報課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후에 파손되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23-24)

이상에서 중앙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중 衛夫人字, 實錄字, 整理字 등의 印本과 관련된 연각목활자를 살펴보았다. 이 인본들은 정조 년간에 출판된 일련의 御定書에서부터 1895년 「官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 연각활자는 단편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중앙박물관 소장 활자들의 사용방식, 활자가 박물관에 들어오게 된 경로를 추적하는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우선 「春秋經傳集解」, 「明紀編年」의 경우 戊申字本으로 본다면 규장각 설립 이전 교서관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규장각 설립 이전 교서관이 조정의 대표적인 인쇄기구였으며, 戊申字가 교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鑄字와 經板 등은 1908년 규장각으로 들어왔으며 이 때 「春秋經傳集解」와 「明紀編年」에 쓰인 연각활자들도 들어왔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박물관 활자 속에 교서관 소장 활자들이 이 외에도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장각 설립 후 규장각에서 소장한 활자는 일차적으로 규장각에서 편찬한 책들을 간행하는 데 이용되었다. 특히 壬辰字와 丁酉字는 모양이 같은 활자이지만 따로 보관하여 두고 어떤 활자를 사용할 것인지 왕이 직접 결정하기도 하였다.<sup>44)</sup>

앞서 소개한 「朱書百選」과 「史記英選」은 內閣의 鑄字所에서 정유자로 인쇄하였고 주자소 설립 이전에 간행된 「奎章閣志」의 경우 정유자를 교서관으로 옮겨 간행에 활용하였다. 고종 년간에는 주자소에 있던 정유자가 이미 대

43) 「舊韓國官報」(영인본) 가운데 이 활자와 꼭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44) 「奎章閣志」(完成本) 卷 1 “編次第四” ‘刊印’ 참조

부분 소실된 상황이었으므로 고종 년간에 새로 간행된 「奎章閣志」는 도서관에서 간행하였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활자를 내각으로 옮겨 와서 간행하였을 것이다.<sup>45)</sup>

규장각 소장 활자가 다른 기관에서 서적을 인출할 때 사용된 예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왕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시강원에서 출판한 책 중 위부인자로 인쇄한 것이 있다. 「羹牆錄」의 경우 정조 10년(1786) 외각 즉 도서관에서 간인하였는데, 신묘년(순조 31:1831년으로 추정)에 시강원에서 다시 간인한 예가 있다.<sup>46)</sup> 「謨訓輯要」 역시 순조 31년(1831) 춘방에서 정유자로 간행하였다.<sup>47)</sup> 「離院條例」의 경우 간행기관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서적의 성격상 시강원에서 간행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sup>48)</sup> 이 때 구체적으로 인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당 기관으로 활자를 옮겨 인쇄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등 활자를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인쇄를 하였을 것이다.

「國朝寶鑑」, 「實錄」, 「列聖御製」 등을 간행할 때는 임시기구를 설립하였다. 실록의 경우는 실록청을 두어 간행하였으며<sup>49)</sup> 실록청은 도서관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日省錄」 정조 4년(1780) 更子 6월 13일조에 「英祖實錄」 편찬시 운각 즉 도서관의 鑄字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日省錄」 憲宗 1(1835) 6월 19일에도 實錄廳을 도서관에 開局한다는 기록이 있다.

정조 이후 「國朝寶鑑」은 세 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다. 즉 正祖 6년(1782)

45) 「日省錄」 純祖 18년(1818) 4월 20일 丁亥에 의하면 옥당 즉 홍문관에서 「禮記」 印役에 도서관의 활자가 부족하여 주자소 소재 위부인자를 사용하자고 청한 예를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도서관과 주자소 소장 활자가 필요에 따라 옮겨 다녔음을 알 수 있다.

4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 215-14

47)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 377; 규장각 홈페이지 「謨訓輯要」 해제.

48) 「承政院日記」 高宗 26년 5월 25일 庚午에 「離院條例」를 간행할 때 감독한 춘방 이하의 관원을 별단에 써서 들이라는 전교가 있다.

49) 실록의 간행에 대해서는 배현숙, 「조선실록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9년 12월) 참조.

13조 보감을 찬집하고 憲宗 13년(1847) 正祖, 純祖, 翼宗의 寶鑑을 찬집하고 隆熙 2년(1908) 哲宗, 高宗의 보감을 찬집하였다. 이 중 헌종 때의 「三朝寶鑑」 찬집에 대해 「日省錄」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헌종 12년(1846) 7월 15일 국조보감 찬집을 위해 찬집청을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고 다음 해 2월 1일 주자소에서 국조보감을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8일 進饌所를 주자소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 다음 날 국조보감 교정의 일을 교서관에 이설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정조 때 보감 교정의 일도 교서관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1909년에 간행된 국조보감은 특별히 局을 설치하지 않고 규장각에서 간행하였다.<sup>50)</sup> 즉 정조, 헌종 때는 교서관에서 「國朝寶鑑」의 인쇄가 이루어졌고, 고종 때는 내각에서 국조보감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列聖御製」 역시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간행하였다.<sup>52)</sup> 「日省錄」 헌종 2년(1836) 2월 1일에는 순조, 익종의 어제를 규장각의 건물인 大西齋에서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고종 2년(1865) 1월 30일조는 小西齋에서 어제의 印役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조 이후 철종 때까지 편찬된 열성어제는 모두 실록자로 인쇄되었으며,<sup>53)</sup> 실록자는 교서관에 보관되었음을 생각한다면 교서관에 보관된 실록자를 내각으로 가져와 인쇄에 이용한 것이 된다. 철종의 어제는 정리자로 인쇄되었으며, 「日省錄」에 소유재에서 인역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주자소에 보관되어 있던 정리자를 소유재로 가져 와서 인쇄한 셈이 된다.

조선후기 출판, 인쇄의 중심역할을 했던 규장각은 1894년 甲午改革을 거치

50) 정형우, “조선시대의 서적정책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208-209. 참조.  
51) 「內閣日曆」 憲宗 14년 5월 5일 丁丑의 기록을 보면 「三朝寶鑑」은 운각에서 간행하였다. 융희 3년(1909) 주자소에서 편찬한 「鑄字目錄」은 「國朝寶鑑」 편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52) 순조의 행장에 ‘命內閣開局校印正宗御製’라는 기록이 있다. 「日省錄」 憲宗 2년(1836) 11월 9일 戊子  
53) 「日省錄」 純祖 13년(1813) 6월 9일 甲辰에는 正祖御製를 정리자로 인쇄하라고 분부하였으나 실제 인쇄는 실록자로 이루어졌다.

면서 기구의 구성과 성격에 변모를 겪게 되었다. 당시 구래의 제도를 모두 신식으로 개정하면서 규장각은 왕실의 사무를 담당하는 궁내부 소속이 되었으며, 그 속사에 校書, 圖書, 寫字가 포함되었다.<sup>54)</sup> 개화과정부는 1895년 4월 2일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면서 奎章閣을 奎章院으로 개칭하여 궁내부의 한 부서로 편입하면서 부속기관으로 校書司와 記錄司를 두고, 교서사에서는 王統譜, 王族譜를 奉藏하고 鑄字를 보관하도록 하였다.<sup>55)</sup>

1896년 11월 10일 궁내부관제를 개정하면서 교서사와 기록사를 폐지하였고, 1897년 1월 4일에는 규장원을 다시 규장각으로 환원하였지만 그 기구는 그대로 두었다.<sup>56)</sup> 갑오개혁으로 규장각은 더 이상 관찬서 출판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지만,<sup>57)</sup> 鑄字의 보관 기능이 언급되어 있듯이 활자의 보관 관리 기능은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1909년 「鑄字目錄」 편찬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 헌종과 철종의 보감을 편찬하는 등 왕실에서 필요한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다.<sup>58)</sup>

갑오개혁 이후 정부 내에서 출판활동은 주로 學部衙門 소속 編輯局에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부 편집국에서는 주로 교과서를 출간하였지만 이 외에도 국민교육에 필요한 각종 서적을 편찬하였으며,<sup>59)</sup> 觀象監과 司譯院 역시 학부아문에 소속됨으로써<sup>60)</sup> 종래 관상감과 사역원에서 인쇄하던 서적 역시 학부에서 간행하였다.<sup>61)</sup>

이 외에도 관보의 발행처인 議政府 官報局이나 內閣 記錄局官報課 처럼 정

54) 「朝鮮王朝實錄」高宗 31년 6월 28일 癸酉.

55) 「朝鮮王朝實錄」高宗 32년 4월 2일 癸卯.

56) 「朝鮮王朝實錄」高宗 32년 11월 10일 丙午; 「朝鮮王朝實錄」高宗 34년(建陽 2년) 1월 4일.

57) 배현숙, “신조초 교서관활동과 서적유통고,” 『서지학연구』 제18집, 231에서 갑오개혁으로 규장각은 더 이상 출판과는 무관한 규장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58) 정형우, 앞의 논문, 208-209. 참조.

59) 배현숙, 앞의 논문, 231; 백린, 앞의 논문(하), 157.

60) 「朝鮮王朝實錄」高宗 31년 7월 18일 壬辰.

61)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양 2년의 책력인 「朝鮮曆建陽2年曆」(한고조 66-57 목판본, 학부 관상소 편집), 「大韓光武8年曆」(한고조 66-16 학부관상소 편집: 석판본) 등을 들 수 있다

부 내 각 기관들도 각자 필요한 문서나 책자를 발행하는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sup>62)</sup> 고종 37년(1900) 3월 23일 農商工部 관제를 개정하면서 印刷局을 증설하였으며 고종 41년 12월 6일에는 度支部 대신 關稅局에 인쇄국을 두었다.<sup>63)</sup>

문제는 규장각이 더 이상 정부 출판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던 활자가 대한제국시대 정부 출판물 인쇄에 사용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이다.

학부에서 발행한 「新訂尋常小學」(1896년 간행) 「地畧略論」(1896년), 「韓淸通商條約」(광무년간, 1897-1906) 「公法會通」(1896년) 등이 재주정리자로 인쇄되었고 1894년 內部에서 발행한 「地方制度改定」 역시 정리자로 인쇄되었다. 1895년 당시 법무아문의 판결문 기록 서식에서도 정리자를 활용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sup>64)</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官報」의 경우 1896년 3월 이전에는 정리자로 인쇄하였고,<sup>65)</sup> 당시에 쓰였던 제호 등의 연각목활자는 현재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리자가 이들 서적이거나 인쇄물에 사용된 구체적 과정은 알 수 없지만 활자들이 사용된 메카니즘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리자가 보관되어 있었을 주자소에 가서 인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자소 또는 규장각의 일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활자를 해당기관에서 대여하여 인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조선총독부 참사관 분실을 거쳐 중앙박물관으로 들어온 활자

62) 「朝鮮王朝實錄」 高宗 32년 3월 25일 丙申 의 기사를 보면 내각 기록국에는 관보의 발행과 함께 내각에서 사용할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도 맡고 있었다.

63) 근대 인쇄시설에 대해서는 이유집, “구한국정부 인쇄국고(1)~(21)”, 「인쇄계」 9집~38집(1971-1975년) 참조.

64) 국가기록원 전시실의 전봉준 판결문 참조.

65) 최정태, 앞의 책, 52에서는 구한국관보 발행은 일원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발행기관과 인쇄처가 분리되어 인쇄처는 독자적인 인쇄 기능만 가지고 관보뿐만 아니라 대개의 정부인쇄물을 정부인쇄국에서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54쪽에서는 정부인쇄국 설립 이전에는 인쇄에 관한 제도나 법규가 없어 의정부관보국에서 편집하였으므로 인쇄는 별도로 관보인쇄소를 두어 시행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속에는 學部 編輯局을 비롯하여 갑오개혁 이후 정부에서 발행, 인쇄할 때 사용한 활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취조국에서 중앙박물관에 인계한 활자 속에 첩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첩활자는 조선왕실의 족보인 「璿源續譜」를 인출할 때 사용된 것이며 「璿源續譜」의 출간은 종정원에서 담당하였다. 宗正院은 1907년 폐지되었으며 이 해 규장각에서 列聖의 御製, 御章, 御眞과 璿源譜牒도 관장하고, 宗室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면서 도서관리와 기록관리 외 종래 종친부의 업무를 완전히 통합시켰다고 한다.<sup>66)</sup> 따라서 첩활자는 이 때 규장각에 인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왕직이 朝鮮總督府 取調局에 인계한 활자의 수량과 「朝鮮舊貫制度調查概要」에 실린 활자, 즉 參事官 分室을 거쳐 중앙박물관에 수입된 활자의 수량과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취조국에서 인수할 당시의 목록에는 鑄字 653,921자라고만 되어 있고, 「參事官分室關係書類」의 「圖書整理事務經過概要」에는 衛夫人字, 實錄字, 韓構字, 整理字 등으로 구분하여 약 65만개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종 정리한 결과는 앞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첩활자, 목활자, 도활자 합하여 884,644자이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자의 수량에 차이가 너무 많다.

「朝鮮舊貫制度調查概要」에 기록된 활자 정리 과정에는 大正 3년 말 활자 일부의 정리를 완료하고 이어 나머지 및 목활자, 첩활자 등을 정리하였다고 하였다. 1차적으로 금속활자를 정리하였다는 의미이다. 李王職에서 인계할 당시 奎章閣에서 보관하고 있던 활자 중 비교적 정리가 잘 되고 판별이 쉬운 금속활자는 수량을 파악하여 인수받아 먼저 정리를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머지 첩활자, 목활자 등에는 원래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던 활자들과 함께 학부 편집국 등 의정부나 궁내부 소속 각 인쇄처에서 사용하던 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朝鮮總督府 參事官 分室을 거쳐 중앙박물관에 인계된 활자 속에는 조선후기 교서관과 주자소에서 사용했던 활자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 여러 인쇄기관에서 사용되던 활자까

66) 신용하, 앞의 논문, 69.

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는 막연히 奎章閣에서 總督府 參事官을 거쳐 박물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또 주로 금속활자에만 관심을 가져 왔고 목활자, 도활자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國立中央博物館에 활자가 들어온 과정과 그 이전에 이들 활자가 제작, 사용되었던 기록들, 금속활자와 함께 사용된 連刻木活字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중앙박물관 소장 활자 속에는 규장각이 본격적인 출판 인쇄기구로 기능하기 이전 교서관에서 사용한 활자들, 규장각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鐵活字, 대한제국 시대 정부의 인쇄기구에서 사용했던 활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여러 종류의 금속활자, 목활자, 도활자 등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 말기까지 조정이나 정부에서 발행한 다양한 印本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며, 활자의 활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확보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內閣日曆」.  
「承政院日記」.  
「鑄字所應行節目」(서울대 규장각 소장).  
「弘齋全書」 권 181 “群書標記”(서울대 규장각 홈페이지 원문정보).  
「朱書百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고 1252-48, 한고조 44-나-2-1).  
「史記英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고 2230-2).  
「奎章閣志」(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승계 고 2107-92, 고 2107-54, 한고조 31-22).  
「實錄廳題名記」(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고 2513-15 ~18).  
「國朝寶鑑」(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고 2151-5).  
「春秋經傳集解」(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고조 07-1).  
「明紀編年」(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 50-11, 일산 고 2255-13).  
「離院條例」(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고 6022-34, 한고조 31-26-1).  
「列聖御製」(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고 3647-31 ~37).  
「朝鮮活字見本帖」(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고조 95-1).  
「靑丘詩鈔」(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고 3643-43).  
「國語」(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고 2224-2).  
「春秋左氏傳」(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조 07-19).  
「羹牆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 고 2150-24).  
「謨訓輯要」(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고조 31-25).  
「實錄字目錄(大字, 小字)」(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崇禎紀元後四戊午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조-26-29-107).  
「上之卽祚三十二年甲午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 고 6024-18, 한고조 26-29-1 ~3).

- 「舊韓國官報」(影印本, 아세아문화사, 1973).  
「新訂尋常小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 5 550-1).  
「地璆略論」(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고조 60-12).  
「取調局 圖書關係書類綴(明治 44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朝鮮曆建陽2年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고조 66-57).  
「大韓光武8年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고조 66-16).  
宮內府大臣官房調査課編, 「宮內府規例」. 京城, 1910.

## 2. 단행본

- 朝鮮總督府編.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 京城: 朝鮮總督府, 1916.  
中樞院編.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京城: 中樞院, 1938.  
허영섭.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서울: 한울, 1996.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람회, 박물관」. 서울: 서경문화사, 2001.  
백 린. 「한국도서관사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庄司淺水. 「印刷文化史」. 東京: 印刷學會出版部, 1957.  
한국도서관학연구회편저, 「한국고인쇄자료전시도록」. 서울: 선문출판사, 1976.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4.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2.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2003].  
한국도서관학연구회. 「한국고인쇄사」. 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6.  
최정태. 「한국의 관보」.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1994].  
「한국고활자특별전」도록.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3. 학위논문

-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배현숙. “조선실록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정형우. “조선시대의 서적정책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강혜영. “조선기 정조의 서적모집 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 1990.

#### 4. 논문

- 정준모. “한국 근현대 미술관 연구.” 『현대미술관연구』 제 14집 (2003). 1-14.
- 김태웅.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취조국, 참서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 『규장각』 16(1993). 100-116.
-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 분류 활동.” 『기록학연구』 4(2001). 93-130.
- 백 린. “조선후기활자본의 형태서지학적 연구(상, 하)”, 『한국사연구』 3, 4(1969). 123-160, 133-159.
- 김영선. “활자자보고.” 『문헌정보학논집』 8(2002). 359-387.
- 윤병태. “규장각소장 활자 자보고.” 『규장각』 11(1988). 49-65.
- 윤병태. “규장자수고.” 『규장각』 12(1989). 20-29.
- 윤병태. “한국 고활자본의 인출기록.” 『서지학연구』 14집(1997). 23-42.
- 신용하.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 5(1981). 60-83.
- 남권희. “한국 고활자 특별전의 전시자료에 대한 개관” 『한국고활자특별전』 도록. 청주 :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128-141.
- 강순애. “정조조 규장각의 도서편찬 및 간행” 『규장각』 9(1986). 98-128.
- 강순애. “규장각의 도서간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합집호(1990). 235-287.
- 방효순. “『운각책도록』을 통해서 본 도서관 장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8집(1992). 109-134.
- 김상호. “관상감활자고”, 『도서관학』 14-1(1987). 131-148.
-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집(1992). 369-393.
- 배현숙. “선조초 도서관활동과 서적유통고”, 『서지학연구』 18집(1992). 221-251.
- 이유집. “구한국정부 인쇄국고(1)~(21)”, 『인쇄계』 9집~38집(1971-1975년).

к с і